

## 45년 해방되던 해 창립...회원 6천여명 대한건축학회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창립된 대한건축학회는 현재 6천여명의 일반회원과 백여개사의 특별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두차례 정기 학술발표대회를 열고 있는 건축학회는 18개 위원회와 소속관련 42개 분과위원회, 그리고 8개 지회를 두고 학회지 「건축」을 월간으로 간행하면서 왕성한 학술활동을 펴고있다.



李廷德

(대한건축학회 회장/고려대 교수)

**건**축은 그 시대의 사회, 경제, 문화, 과학의 산물이다.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지정학적, 자연환경에 조화되는 독특한 건축문화를 구축해 왔음은 세계인이 인정하는 주지의 사실이다. 지구문화의 공통 교류로 인한 건축문화의 국제성은 그 지역의 고유한 지역성과 더불어 적절히 안배(Global+local=Glocal)될 때에 안정된 문화현상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건축의 특성인 일원적 양면성(문화예술+기술)은 기술을 지원받아 추구하는 문화예술성의 구현에 그 근거를 이룬다.

대한건축학회는 1945년 해방과 함께, 뜻있는 건축계의 선구자들에 의해 설립되었고, 8.15광복 후의 사회적 혼란기, 6.25의 전란기, 그후 여러 가지 사회·정치 혼란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커다란 발전과 함께 4백평에 달하는 독립건물을 소유, 운영하는 건축학술단체로 자리하게 되었다. 대한건축학회는 관·산·학·연 등 유관기관(단체)과 학술적 유대를 돈독히 하면서 선진학문의 도입과 학문체계를 정립하였고, 심도깊은 학술연구활동과 미래지향적인 주요 핵심기술의 개발, 보급에 노력하였다. 또한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요구의 수요공급을 위해 건축교육의 개선과 건축산업의 사회·경제적 중심역할을 위해 정책개발·추진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세계 속의 학술단체로 자리하기 위해서 국제학술교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고,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학술서적의 발간사업은 본 학회 주요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 매년 2차례 정기 학술대회

현재 학회의 조직은 회장 이하, 연구 1·2, 총무 및 사업담당 부회장 등 4명의 부회장과 이사, 참여이사, 감사 및 18개 위원회와 소속관련 42개 분과위원회, 그리고 8개 지회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 지난 95년 10월 교육문화회관에서 거행된 대한건축학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장면

회원은 6천여명의 일반회원과, 백여개사의 특별회원, 그리고 백50여의 도서관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주요행사로써는 연 1회의 정기총회, 9회의 이사회, 2회의 정기 학술발표대회와 20여회의 각 전공별 심포지엄, 세미나 및 강습회 등이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시상제도는 건축계에서 가장 큰 명예로 삼는 대한건축학회상이 공로, 학술, 기술, 작품 그리고 특별부문으로 구분되어 매년 정기총회시 시행되고 있다.

### 美·日·中과 학술교류협정

특히,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과 학회지 「건축」이 각각 월간으로 간행되고 있고, 일본건축학회, 중국건축학회 및 미국건축대학협의회(ASCA) 등과 건축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되어, 활발한 국제학술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현대인의 사고체계, 생활양식, 국제정세 등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과 도시민의 새로운 생활양식에 맞는 건축, 도시 및 국토계획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환경친화건축, 정보화건축, 하이테크건축의 요구충족 등을 위해서, 정책을 입안 및 시행하는 정부기관, 건축산업·유통 협력체

제를 유지하며 학문의 실용성 극대화를 위한 학계간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세계의 건축정보 체계화, 실용화와 타 기관(학술단체)과의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건축정보센터 설립이 추진, 실현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모든 건축관계인들의 정보공유를 통한 학술교류와 최신 주요정보 제공을 위한 건축학회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금년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온 학술행사 뿐만 아니라, 지회특성에 맞는 연구활성화를 위한 학술연구지원, 건축제도·기준 및 용어의 새로운 개념연구, 새로운 대학교육제도 개선추진, 전문가 교육연수 및 기술강좌, 대학건축(공)학과와 기본시설에 대한 연구, 건축대도시 주요 도로변 건축물의 도시공간에서의 문제점, 철근콘크리트 내력벽식 건축물의 구조설계기준 및 해설 등에 대해서 연구계획이 수립되어서 실현되고 있다.

특히, 머지않은 장래에 실현될 남북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건축학회로서 해야할 관련 연구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 첫단계로 남북학술교류를 위한 기초작업에 착수하였으며, 미국, 영국, 중국 뿐만 아니라 유럽, 동남아 등의 여러 국가의 학술단체와 폭넓은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건축은 많은 관련분야 학문이 복합적으로 구성됨으로써 하나의 건축실체로 현실화되며, 다양한 분야의 학문이 종합되고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는 현대학문의 학제간 교류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건축을 구성하는 내부분야로는 건축계획, 구조, 환경, 설비, 재료, 시공



▲ 대한건축학회 1997년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식 장면

과 도시 및 단지분야가 있고 이들의 내적인 상호연계, 종합화를 통해서 건축은 실현된다. 건축관련단체는 크게 학회, 협회, 연구소 및 행정기관으로 분류된다.

건축학회와 관련된 주요학회는 대한토목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병원건축학회, 한국건축역사학회,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한국조경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강구조학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한국음향학회, 한국주거학회, 한국지반공학학회, 한국소음진동공학학회 외에도 다수의 건축관련 학회가 있고 이들간의 유기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학문과 관련된 분야의 사회적 활동에 지원하며, 학문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활동여건을 조성하는 여성건축가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기술사회 등이 있다. 그리고, 회사 또는 정부기관에 소속되어 건축관련사항의 실질적 현장요구에 대응하는 요구내용에 대해서 연구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건축관련연구소로는 국토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시정개발원,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와 한국건설기술연구회 등이 있다.

위의 건축학회 관련단체와는 학회 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의 학술사업계획 시행시에 공동

또는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역할을 상호 증진시키고 있다.

### 남북교류도 단계별 실현계획

21세기를 앞두고 또한 남북통일에 대비하면서 건축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계획할 것이다.

1)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국제화 속에서 우리 것의 정체성 파악은 물론 새로운 생활양식, 건축문화 기

획

2) 정보화시대에서 건축정보의 체계화, 실용화를 위한 건축정보센터의 활성화

3) 건축의 사회·경제·문화·예술·과학기술분야에서의 위치 및 역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건축교육제도, 시설기준에 대한 새로운 정립

4) 남북한의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한 학술교류의 단계별 실현

5) 산학협동을 위한 기술자료 정리 및 연구

6) 기 교류협정 체결한 외국 학술단체(일본, 중국, 미국) 외에 유럽, 동남아 국가와의 폭넓은 학술교류

UR 개방과 WTO 체제하의 국가간 모든 분야에서의 무한경쟁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건축계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특히 우리 건축설계 및 시공현장에서 그간에 축적되었던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통합·계열화시키는 작업은 국제화시대에 커다란 대응력이 될 것이다.

건축학회는 건축관련 여러 단체 중에서 그 역할의 중심에 서서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그 소임이 우리 학회에 있음을 알고, 건축의 문화 예술성과 과학기술의 현실에 충실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㉞